

# 포스코 ICT (022100, KQ)

## 코스닥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일으키다

현재 주가	2018 목표주가	Upside Potential
8420원	10600원	26% 상승

### 2017년, 뜨거웠던 코스닥 시장

코스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주식시장이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조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코스닥 시장을 성장시킬 동력은 올해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KRX300의 출범과 연기금 기관들에게 코스닥 종목 거래세를 면제하는 혜택은 코스닥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 포스코 ICT 및 코스닥 지수

(단위: 원 / 포인트)



### 포스코 ICT가 매력적인 이유

#### 1. 코스닥 시장의 자금유입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8.6조원 규모의 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기관과 개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코스닥 시장은 올해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 2. 스마트 팩토리 수주의 확대

2020년까지 포스코 그룹사 66개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화그룹 같은 외부기업에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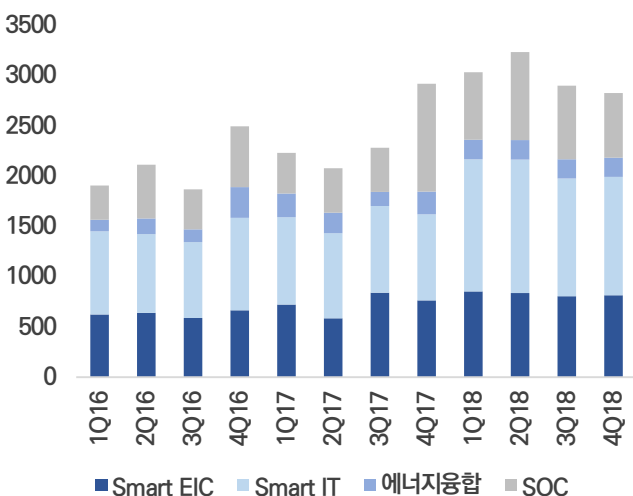
#### 3. 4차 산업 성장스토리의 유효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시장은 급성장해 2019년 그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동사는 코스닥 150종목 중 유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으로 높은 실적과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2018년 두산 신사옥 신규 수주 및 인천 공항 확장 공사로 인한 BHS 매출 증가로 동사의 SOC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 포스코 ICT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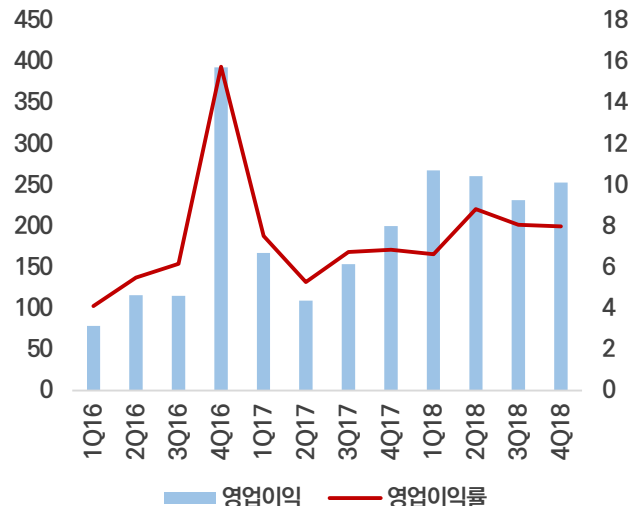
[그림 1] 포스코 ICT 매출 추이

(단위: 억원)



[그림 2] 포스코 ICT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 2018년, 작년보다 더 뜨거운 코스닥 시장

###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KRX300의 벤치마크 선정

→ 전년 대비 3.3배 이상인 연기금 자본 8.6조원 이상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

#### 코스닥 시장을 향하는 경제정책방향

작년 12월 27일 발표된 2018 경제대정책방향에 따르면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1)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2) 벤처, 코스닥 펀드 활성화 3)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 확대 4)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가 있다. 정부는 현재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재정비와 함께 **올해 1월에는 연기금의 투자확대를 위해 코스닥 종목 차익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혜택을 발표했다.

#### KRX300, 연기금의 새로운 벤치마크

벤치마크는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는 코스피 시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된 비용인 130조원 중 98%가 코스피 시장에 투입되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지수인 KRX300은 코스피 237개 종목, 코스닥 6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피 200보다 변동성은 낮지만 수익률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기금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지정**되었다. KRX300 지수는 시가총액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주식의 유동성과 자본잠식의 여부를 고려했다. KRX300에 포함된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은 6.6%로 연기금이 2017년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자금의 규모는 약 8.6조원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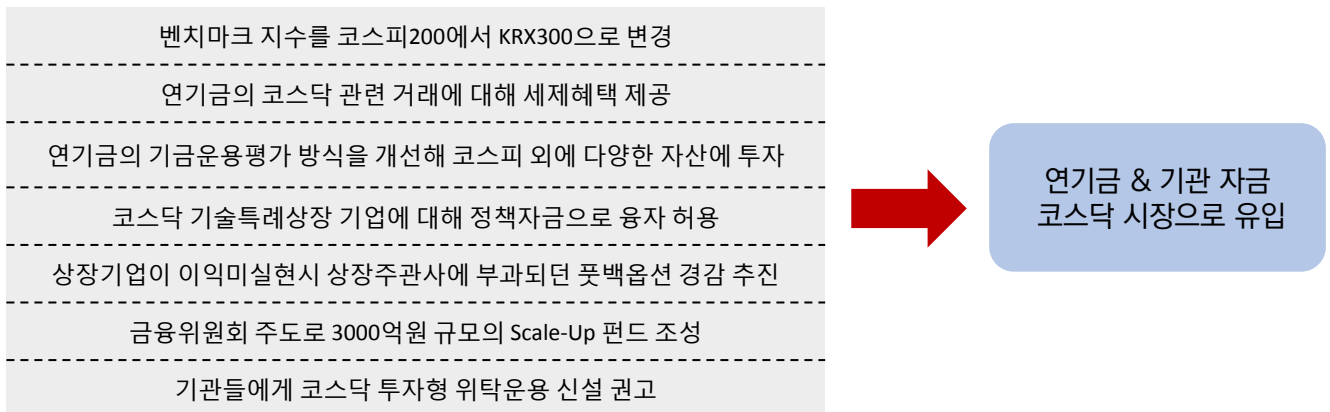
#### 연기금의 8.6조원이 가지고 있는 파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진 KOSDAQ 150 지수의 총 시가총액은 152조원이다. 최근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KOSDAQ 150의 시가총액은 감소했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하고, 시장에 유통되어 거래되는 유동주식비율을 고려한 유동시가총액의 합은 84조원이다. **앞서 말한 연기금의 8.6조원은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 유동시가총액의 10.2%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 연기금 기관들의 긍정적인 태도

연기금 개별 기관들의 코스닥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다.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8%가량이었던 코스닥 직접 투자비중을 올해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학 연금은 지난해 11월 투자 가능 종목군에 속해야만 투자하는 내부 규정을 없애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이면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도 코스닥 투자를 늘릴 계획을 세우며 코스닥 시장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말한 연기금의 8.6조원은 최소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행정공제회처럼 각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 보유 비중을 높이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자금의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 [그림 3] 2018 코스닥 활성화 방안



**성장성이 보장된 非바이오 주**

**포스코 그룹향 안정적인 매출, 스마트 사업의 성장, 코스닥 150 중 유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 실적, 재료, 수급이 주가를 뒷받침할 것

**바이오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 코스닥**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5위 중 12개의 종목이 바이오 분야이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64%를 차지한다. 아직 실적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며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 개발이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바이오 종목만으로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非바이오 종목으로서 튼튼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 포스코ICT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안정적인 고객군 : 포스코 그룹**

포스코 ICT의 시가총액은 1.3조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26위에 자리잡고 있다. 1월 발표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매출은 9505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2017년 예상 영업이익은 630억원으로 약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포스코 그룹사향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적의 안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성장 동력 : 스마트 시티 & 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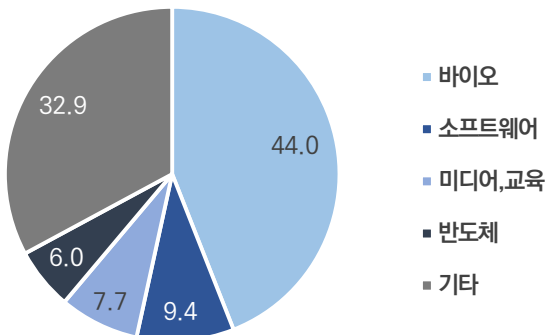
동사는 신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에 올해를 이끌 핵심 선도사업으로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용 정책자금으로 3300억원을 집행할 것이며, 기반기술 R&D에 4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5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기반기술 R&D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술적 투자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국가 시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각 분야의 결과물들을 융합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와 시장의 관심이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로 쏠리고 있다. 포스코 ICT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 사업분야의 국내 선도 주자이며 앞으로도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또 다른 매력**

포스코 ICT는 2018년 예상 매출액 1조 1990억원, 영업이익 1012억원으로 영업이익률 8.5%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견인한 사업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빌딩 사업이다. 미래를 바꿀 핵심기술이라 꼽힐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시장의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세계 스마트 시장의 규모는 1000조원 넘어설 전망이다. 동사는 **코스닥 150 종목 중 유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으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될수록 더 매력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그림 4] 바이오 상위 150종목, 산업별 비중

(단위 : %)



[그림 5] 스마트 시티 발전 단계

발전 단계	구체적인 예시
기반구축	데이터 베이스 인프라 구축
수직적 구축	교통 및 물류 관리
수평적 구축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공유
도시플랫폼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
미래도시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자료 : 리서치모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리서치모름

**연결된 미래를 그린다**

**4차 산업혁명 : 융합의 시대**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위한 기틀인 5G 통신기술의 도입이 시작되었고, 2018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를 것이라 말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개의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점이다. 증기기관 같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이들은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보았다.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포스코 ICT는 크게 스마트 EIC(Electricity, Instrumentation, Computer), 스마트 IT, 에너지, SOC(Social overhead capital) 4개의 사업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분야들은 여러 개의 기술과 장비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같은 분야의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분야 내에서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크게 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은 스마트 IT분야에 해당하지만 스마트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 장비들은 스마트 EIC분야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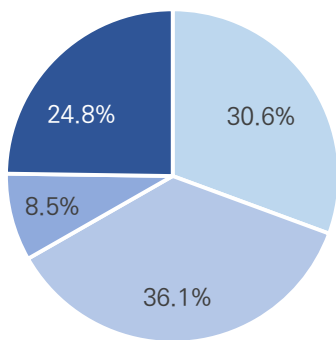
**활용성과 확장성 : 고객을 유지**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통합 솔루션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을 공장에 적용하면 스마트 팩토리, 일반 건물에 적용하면 스마트 빌딩이 된다. 이에 다양한 에너지 분야 기술들을 융합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Total Energy Optimization)를 더하면 미래의 도시, 스마트 시티로 확장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고객이 다른 분야의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적절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포스코 ICT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6] 사업부별 매출 비중

(단위 : 십억원)



Smart EIC   Smart IT   에너지융합   SOC

[그림 7] 포스코 ICT가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분야



**동사의 주요사업: 고도화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 기술의 집합적 적용을 통해 생산성 증가, 불량률 감소, 원가 감소, 납기 지연 감소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지능형 공장
- 동사는 스마트 공장의 수준 구분에서 현재까지 가장 선진화된 단계인 고도화단계(4단계)의 기술 구현

**4차 산업이 이끄는 제조업계의 혁명, 스마트 팩토리**

동사의 주요사업인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 · 개발, 제조 및 유통 · 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ICT, AI, Big data 등)과 결합되어 수요자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최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 공정과정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수행하도록 구축된 공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성 23% 증가, 불량률 46% 감소, 원가 16% 감소, 납기 지연 34.6% 감소**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이다. 총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Smart EIC와 Smart IT부분이 모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술이다. 동사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 생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생산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품질 불량을 줄이며 설비장에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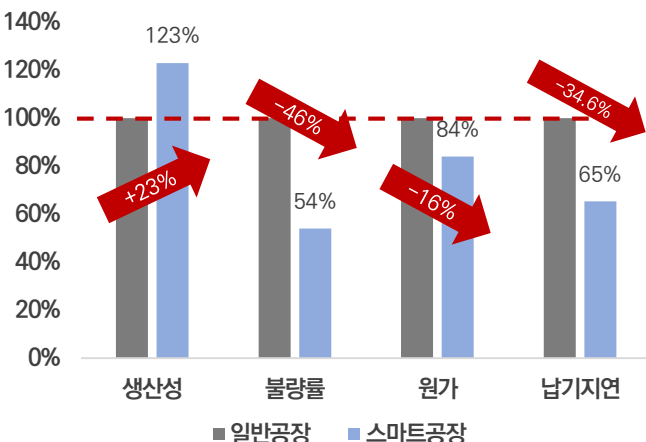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공급산업 영위 중**

스마트 팩토리 공급산업에는 Smart Factory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산업용 네트워크, RFID시스템, 센서,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컨트롤러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MES, ERP, 빅데이터, 클라우드, CPS, 시뮬레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다. 반대로 스마트 팩토리 수요산업에는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항공 등 조립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산업과 정유, 발전, 제지, 제약 등의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는 연속공정 산업이 있다.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도화 단계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

스마트 공장의 수준은 크게 ICT미적용, 기초(1단계), 중간1(2단계) 중간2(3단계), 고도화(4단계), 미래형 공장인 5단계로 구분된다. 현존기술로는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단계는 **고도화 단계(4단계)**이며, 독일의 지멘스, 국내에서는 LS산전, 삼성 SDS 등이 동사와 더불어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고도화단계는 공장에서 설비와 시스템의 자율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다기능 지능화 로봇과 시스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생산을 효율화한다. 이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이 아직 스마트공장 2단계인 커넥티드(Connected)도 되지 않아 종합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수준보다 높은 차별화된 기술이다.

[그림 8] 스마트 공장의 성과



자료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리서치모름

[그림 9] 스마트 공장 수준별 단계

<b>고도화</b> IoT, 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 설비, 자재,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IoT/CPS) -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설비,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운영 - 전 제조 과정의 통합 운영
<b>중간수준2</b> IT, sw 기반 실시간 자율제어	- 관리 시스템을 통한 설비 자동 제어 → 실시간 생산 최적화 - 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실시간 연동: 개발 ↔ 생산 ↔ 자원관리
<b>중간수준1</b> 광범위한 생산정보 실시간 집계, 모니터링	- 설비 정보 자동집계 → 실시간 공장 운영 모니터링, 품질분석 - 분야별 관리 시스템간 부분적 연계 ex) 기준정보, 엔지니어링 정보 생성, 수주정보 → 생산계획
<b>기초수준</b> 생산이력 추적관리	- 생산실적 정보 자동집계 → 자재흐름 실시간 파악, Lot-tracking - 부분적 관리 시스템 운영(설계, 영업, 재고, 회계 등)
<b>ICT미적용</b>	- Excel 정도 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자료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리서치모름

**독자적인 플랫폼(PosFrame)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시장 현황**

- 동사는 자체 개발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통해 총 157억 원의 비용 절감
-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2022년에 205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아직 외산 솔루션 의존도 높지만 정부의 꾸준한 지원 확대 예정

**PosFrame 개발**

동사는 세계 최초 연속공정 스마트 팩토리 표준 플랫폼 ‘포스프레임(PosFrame)’을 개발하였다. 포스프레임은 다양한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적용하는 포스코그룹의 스마트 인더스트리 표준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작업자를 위한 쉽고 빠른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포스코 그룹은 포스프레임을 통해 지난해 세계 철강업계 최초, 중후장대 산업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여 **총 15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선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미국의 로크웰, 독일의 지멘스를 선두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 205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북미지역이 글로벌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현재 아시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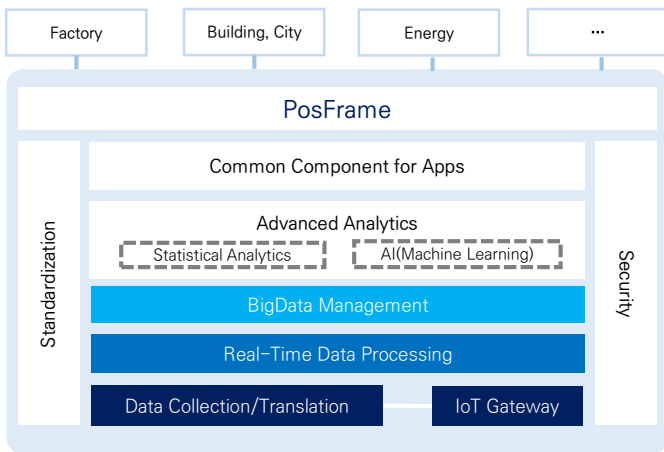
동사는 현재 국내 고객 위주로 스마트 팩토리화를 실현하고 있지만 지멘스, GE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올해 해외 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사업실을 신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선도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향후 해외 수주 계획이 더욱 구체화됨으로써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확대 노력**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의 3대 전략의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5년 5월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설립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보급 사업 총괄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17년 5,000개, 20년 1만개, 25년까지 3만개** 스마트 공장 공급을 목표로, 공급 기업 육성, 금융지원, 인력양성을 비롯한 공급-수요기업 매칭, 우수모델 구축·발굴 등 스마트 공장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 구축업체 수는 2016년 2,800개로 2014년 277개보다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은 매우 낮은 기초단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부 공정을 자동화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ICT를 적용한 고도화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고도화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아직은 외산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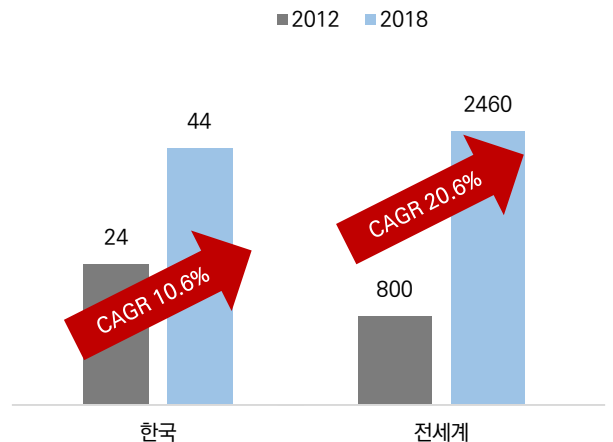
[그림 10] 스마트 팩토리 표준 플랫폼, 포스프레임(PosFrame)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그림 11] 스마트 공장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 마케츠앤드마켓츠, 산업통상자원부, 리서치모름

**성공적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구축**

15년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례 →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룹 핵심산업 분야 스마트 팩토리화 + 대외 스마트 팩토리 수주 → 우리나라 제조업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구축 선도

**성공적인 시범사례와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

동사는 개발된 포스프레임(PosFrame)을 2015년 말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시범사례를 보였다. 이는 철강 제조설비의 예지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제품결합 최소화 및 실시간 최적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대용량 Data 처리를 위한 Smart Data Center를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구축하고 있으며, 제철소의 다른 공장으로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제철소 외에도 건설, 에너지 등 그룹 핵심산업 분야의 스마트화 선제안 사업을 강화하였다. 포스코 그룹 내 수주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포스코향 스마트 팩토리 수주가 5건**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동화기업에 최초로 대외 스마트 팩토리 시범공장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 생태계 구축의 선도자**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서의 전문성은 높은 경쟁력과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자체 개발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적용하여 대형 기업 위주의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이 타겟인 다른 대부분의 국내 스마트 팩토리 업체들과 차별화된 타겟을 대상으로 한다.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 기업은 아직 국내에 많지 않은 와중에 동사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선도자로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15년도에 증명된 스마트 팩토리 성공사례와 향후 국내에 예정된 지속적인 수주들이 동사의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인 GE의 Smart Factory 플랫폼인 ‘Predix’와 자사의 플랫폼인 ‘PosFrame’을 상호협력 하는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기술적 고난이도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과 더불어,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미래 산업이다. 따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어려운 낮은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 외산 솔루션의 한계**

국내에서는 아직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유의 주력 제조업, 기술 및 사업 역량, 기업간 구조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차별적인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외산 솔루션 업체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특화된 서비스, 우리 제조업의 체질에 맞는 차별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 주요 국가, 기업들의 전략이나 동향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제조업의 체질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국내기업**으로서 동사는 매우 유력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그림 12]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연혁 및 계획

2015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포스프레임' 적용하여 스마트 팩토리화
2016.01	지멘스와 솔루션 파트너 협약 체결
2017.03	포스코 포항, 광양 제철소 내 스마트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
2017.09	동화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수주
2018	포스코 캠텍(음극재), 포스코강판(컬러공장) 스마트팩토리화
2019	포스코엠텍, SNNC, 피엠씨텍 등 고부가가치 생산라인 스마트 팩토리화
~2020	총 66개 스마트 팩토리화 완료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아룸

[그림 13] 스마트 팩토리 적용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운전실



자료 :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사업부의 투자포인트**

포스코 그룹사향 captive(내부 계열회사) 수주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동화 기업을 비롯한 포스코 외 추가적인 대외수주도 예상 → 스마트 팩토리 관련 매출은 17E 837억원에서 18E 약 2000억원(YoY 239%) 정도로 예상되며, 총 매출 비중은 8.8%에서 16.6% 정도로 확대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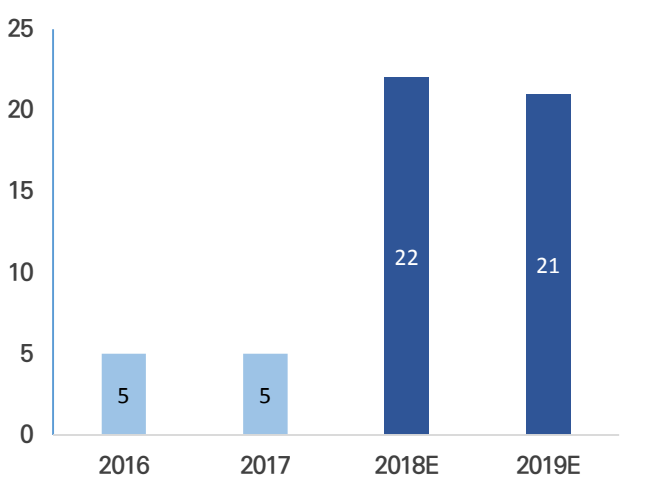
**포스코 그룹사향 captive 수주는 안정적으로 지속**

동사는 포스코 그룹사향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포스코 캠퍩을 포함한 그룹사 스마트 팩토리화가 '17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도에 포스코향 스마트 팩토리 수주가 5개 이루어졌고 2018년도에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는 **13개**로 예상된다. 그 후로도 포스코 그룹은 **20년까지 총 66개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주력인 철강분야 사업성 개선에 부진했던 건설사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 매출 60조원을 3년 만에 회복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는 제철소 설비 신예화 투자뿐만 아니라 리튬, 양극재 등 신성장 사업 투자와 에너지, 건설 등의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동사의 그룹사향 수주도 안정적인 하방으로 작용하여 실적개선에 충분한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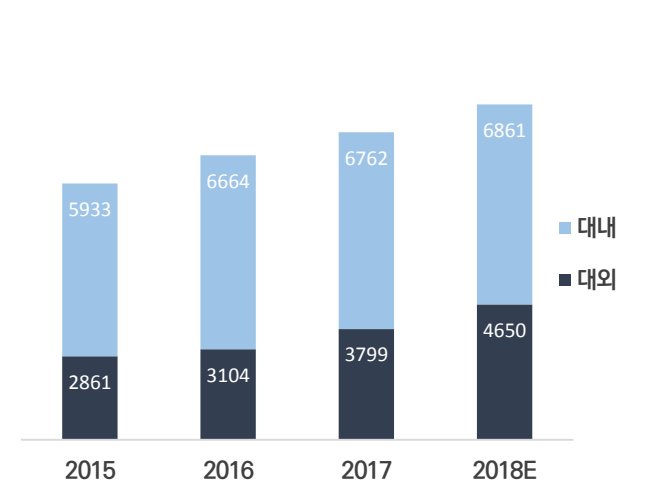
**외부수주 및 대외수주 기대**

동사는 그룹사향 안정적인 수주에 그치지 않고 외부 수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4차 산업과 관련한 비 captive 스마트 솔루션 수주 확대 계획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가 구축 중인 국내최대 목질자재 전문기업인 동화그룹의 인천 파티클보드 시범공장의 스마트 팩토리화는 17년 9월 시작해 18년 7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인천 공장은 축구장 24개에 달하는 17만㎡ 넓이로 국내 파티클보드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대형 공장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직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공정을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하여 제품 불량률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현재 2%를 웃도는 설비 돌발 고장률도 **1%대**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내생산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10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본공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이번 수주는 최초의 대외 스마트 팩토리 수주로, 시범공장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공장에 대한 대외수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적, 문화적으로 근접한 아시아태평양 스마트 팩토리 시장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8년부터는 미주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대외수주 기대를 더욱 끌어올린다.

**[그림 14] 포스코 그룹사 내 스마트 팩토리 증가 (단위: 개)**



**[그림 15] 대내외 수주 추이**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IT 부문 :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로 인한 Big Data 수요 증가 → Data Center 건설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 기존 IT 부문 고객사를 Smart Factory 사업의 새로운 고객으로 전환가능성 증대”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제외한 ‘Smart IT’ 부문 17E 매출 2703.4억 원, 18E 매출 2903.5억 원(YoY 7.4%)으로 예상한다.

**IT - Smart Factory와 Smart SOC의 기반사업**

포스코 ICT의 IT서비스 분야는 크게 IT 제어기술을 결합한 ERP 등 ICT융합전략 컨설팅, IT 인프라 구축, Big Data 수요에 따른 Cloud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과 관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IT 사업부문은 각종 Smart Factory, SOC 등 Smart Construction 부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부로 기존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4차 산업에서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loud 서비스, 현실화 되어가는 AI, IoT의 흐름에 Data Center를 중심으로 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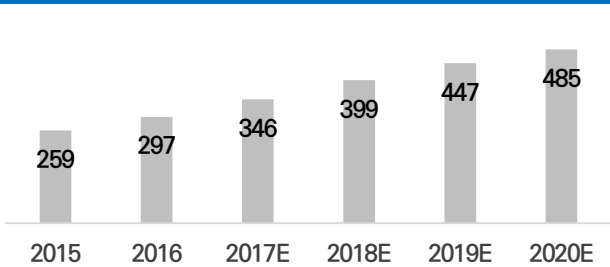
CES2018에서의 주요 테마는 결국 AI, IoT를 통한 Smart City의 구현이었다고 무방하다. 그 이면에는 세계적으로 점점 Big Da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ISCO에 따르면 전세계 16년 데이터 규모가 9.6엑사바이트에서 21년 278엑사바이트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I와 IoT 모두 Data 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PC에서 넘어서서 현실에서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각각의 디바이스와 상호 연결하는데 있어서 Data Center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필수 인프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20년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산업은 CAGR 18.4%로 전망됨에 따라 동사의 IT 매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또한 동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동사가 기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사의 Smart Factory의 고객이 될 유인이 생기며, 실제로 포스코 계열사 및 주요 전/후방사와 수주를 할 공산이 크며, 동화기업을 필두로 외부 수주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건축업체 DPR 과 MOU 체결, Data Center 건설 등 “SMART X”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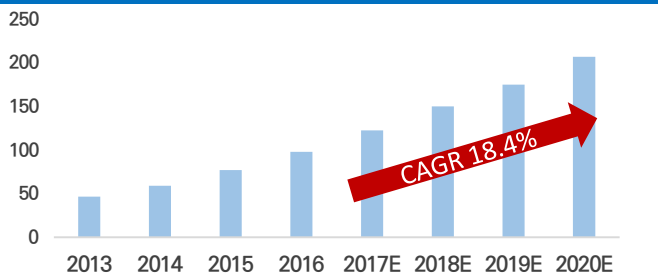
최근 Big Data에 기반한 Cloud, AI 등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Data Center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동사는 미국 DPR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미국 지역의 Data Center 건축 사업을 통한 Smart X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기존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Cloud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아시아, 미국에서의 Data Center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Data Center 산업 진입을 구체화 하고 있다. DPR건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기업의 Data Center를 시공하고, Data Center 분야의 재수주율이 90%가 넘는 등 고객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16] 글로벌 Hyperscale Data Center 추이**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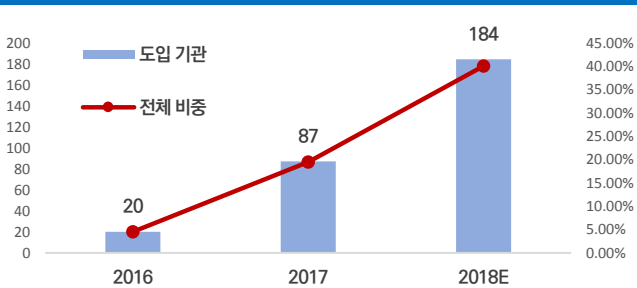
자료 : Cisco, 리서치모름

**[그림 17] 퍼블릭 클라우드 산업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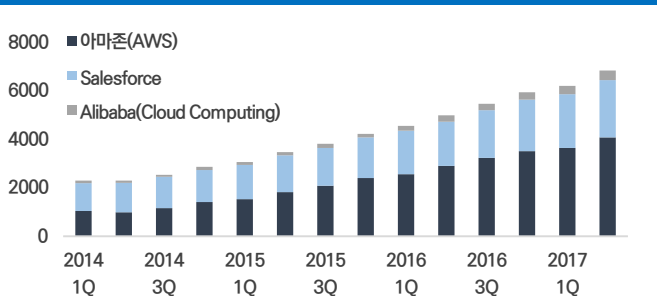
자료 : IDC, 리서치모름

**[그림 18] 국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적용 추이** (단위 : 개/%)



자료 : 머니투데이, 리서치모름

**[그림 19]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Bloomberg, 리서치모름

**융합에너지 : 전기차 충전소 ChargeEV의 선점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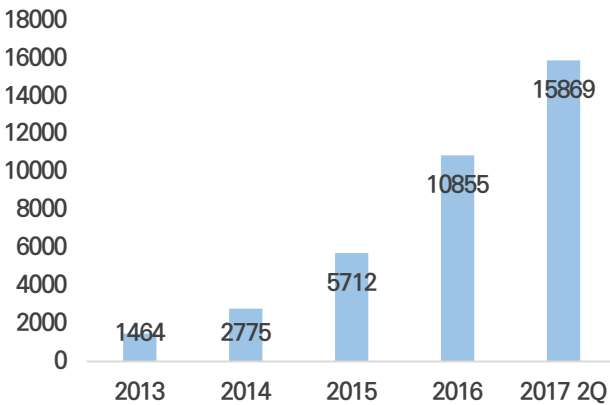
“정부의 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실시 → 매년 1500기 이상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예정 → 민간 전기차 충전소 1위 사업자인 동사의 선점효과”의 과정을 통해 융합 에너지 부문 17E 매출 807억 원, 18E 매출 853억 원(YoY 5.8%), 19E 매출 972.6억 원(YoY 13.9%)로 예상한다.

**전기차 충전소, Killer Application로서 잠재적 성장력**

동사는 자체 브랜드 ChargeEV를 통해 민간 전기차 충전소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GM, 현대차, BMW의 충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최근 각종 대형 자동차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전기차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자 수 또한 2016년 1만대 대비 2017년 2.5만대로 약 230%로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22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또한 2016년 750기에서 2017년 1,801기로 약 240%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매년 1500대 씩 증설하여 2022년 1만 대로 증설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주유소 설치 대수 12,000기와 동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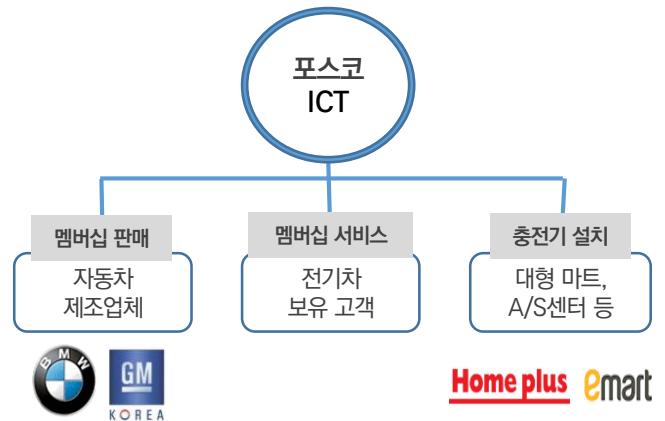
동사의 Energy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국내 전체를 아우르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 사업(마이크로 그리드, ESS(Energy Storage System))과 연계 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이후 Smart City 등과 연계하여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20] 국내 전기차 등록 추이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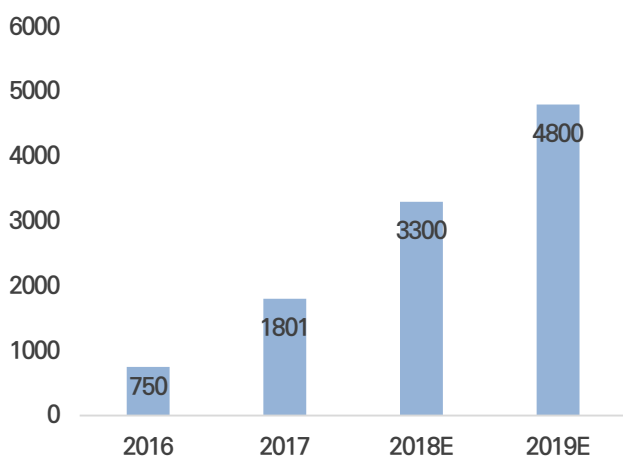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리서치모름

[그림 21] 포스코 ICT 전기차 충전소 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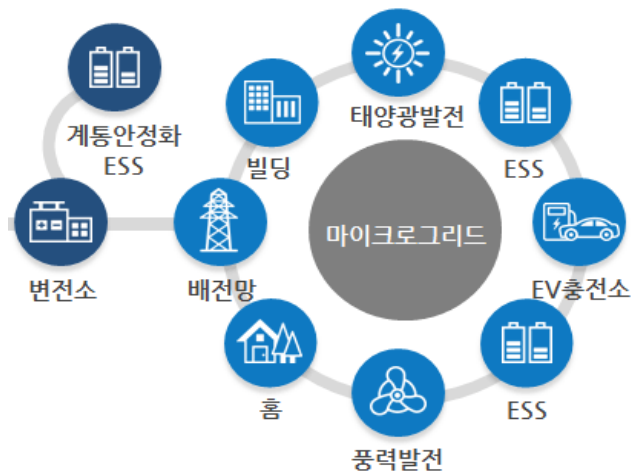
자료 : 포스코ICT, 리서치모름

[그림 22]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 추이 (단위: 대)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리서치모름

[그림 23] 전기차 충전소와 동사 에너지사업 연계



자료 : 포스코ICT

**미래도시의 모습,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의 대표주자**

**포스코향 스마트 빌딩 Captive 수주 + 2018년 두산 신사옥 프로젝트 등의 신규 수주 지속 전망**

**SOC**

- 1)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빌딩(스마트홈 + 스마트오피스)
- 2) 공항 B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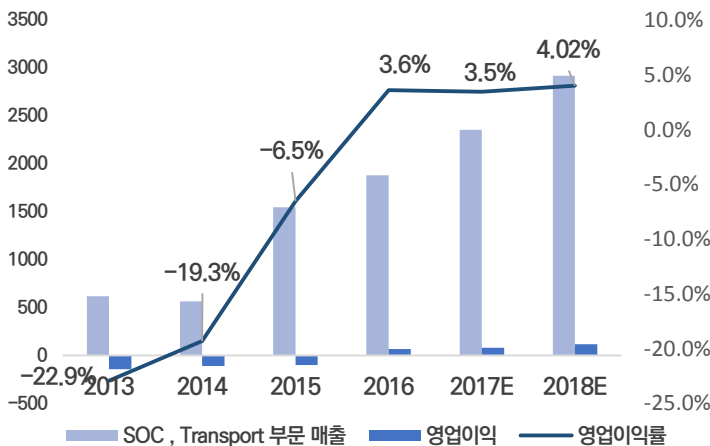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부 SOC는 도로, 교통, 철도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뜻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대표적으로 빌딩,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영위하는 사업부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 동사는 첨단 ICT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시티 구축, 스마트 빌딩, 공항 자동화 시스템 등에 필요한 시설부터 솔루션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FRS 연결 기준 동사의 올 3분기 누적 영업 실적은 SOC 영업부문에서 약 1조 3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 및 빌딩과 공항 BHS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포스프레임**

- 스마트 시티 적용
- 국내 스마트 빌딩의 지속적 수주 + 모회사 포스코의 스마트 빌딩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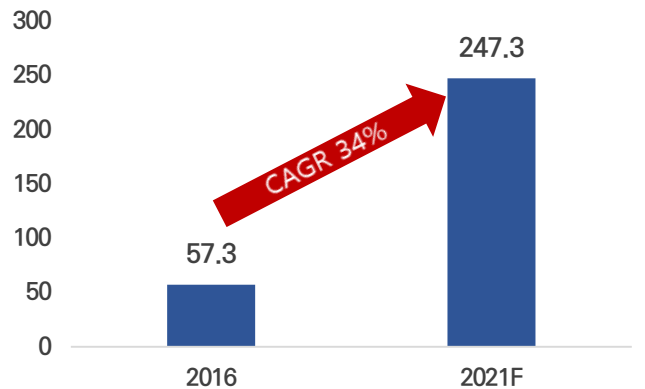
스마트 시티란, 첨단 ICT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로 가전제품, 전자기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공유 및 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이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PosFrame)'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여 도로 주요 지점에 센서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용량 ESS 설치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 하는 등 교통, 에너지, 빌딩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화를 구현하고 있다. 동사는 스마트 빌딩 부분에서 17년 약 1356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16년 1170억원보다 20% 증가한 실적이다. 실례로는 청라신도시의 빌딩, 창원중앙역 스마트빌딩 수주 등이 있으며, 두산그룹 사옥 솔루션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동사의 주요 전방사이자 모회사인 포스코의 스마트 빌딩 관련 수주 금액 또한 2016년 1350억원에서 2017년 2500억원(YoY 85%)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포스코향 스마트 빌딩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포스코 ICT SOC 부문 매출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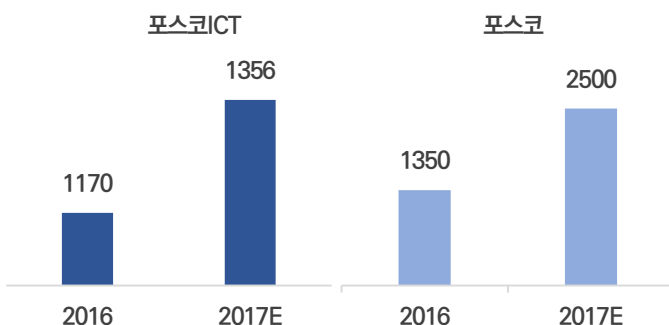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그림 25] 세계 스마트 빌딩 시장 규모 (단위: 억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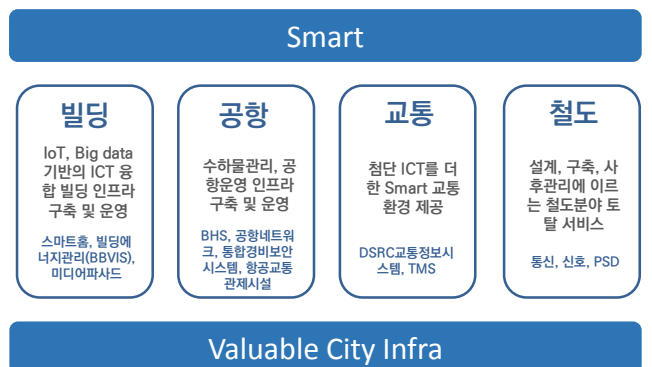
자료 : Marketsandmarket, 리서치모름

[그림 26] 스마트 빌딩 수주금액 추이 (단위: 원)



자료 : 포스코 ICT, 포스코, 리서치모름

[그림 27] 포스코 ICT SOC 사업 개괄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미래도시의 모습,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의 대표주자**

쿠웨이트 및 사우디 아라비아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수주로 해외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 시작  
 마스터 플랜 및 시공 완료 후 18년 2분기, 19년 2분기부터 스마트 시티 매출 본격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및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현황:**  
**포스코: SMART Biz 통해 스마트 시티 건설 + 정부차원의 스마트 시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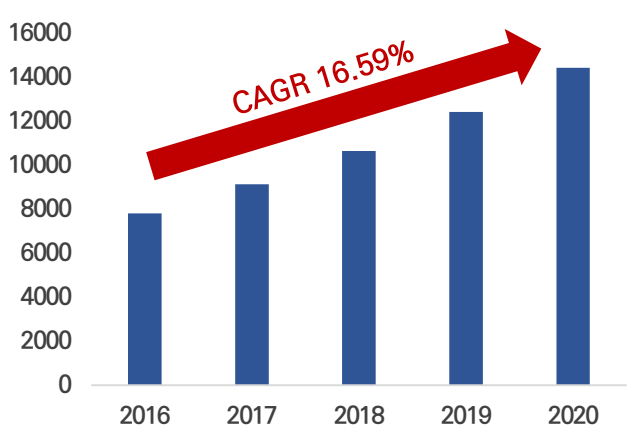
세계 스마트시티 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되며, 아시아 지역이 유럽지역(80여개) 다음으로 70여개의 스마트 시티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정보통신부에서 2006년 U-city(유비쿼터스 시티) 구축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1차 U-city(2008~2013년), 2차(2014~2018년) U-city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서 세종, 동탄, 판교 등 시범단지별 컨셉을 달리하여 전국 곳곳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추진 중이며, **동사의 모회사 포스코건설의 경우 이미 송도 국제도시, 베트남 북안카잉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건설의 전문성을 입증해왔으며, 2017년 9월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지멘스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 시티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의 스마트 시티에 시범 도입 후 POSCO형 스마트 시티 모델인 SMART Biz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의 슬로건은 "The Future of Smart Cities"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빌 게이츠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을 보아 동사의 사업부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쿠웨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참여 : 스마트 시티 해외 시장 진출**

동사는 국내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사우디 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등의 해외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수주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스마트 시티 산업에 진출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Al Wedyan Smart City' 진출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며, 동사는 18년 2월 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후 본 사업 진입 시 총 사업비의 3~5% 정도가 스마트 시티 구축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 시티의 경우,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쿠웨이트 순방에서 시작되어 2016년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압둘라 신도시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사는 17년 4월 쿠웨이트의 압둘라 지역에 **약 64.4km<sup>2</sup>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18년 6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쿠웨이트 신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4.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LH, 포스코 ICT 등 국내 기업이 선두로 참여하게 되며, 2019년 4월 MP용역이 종료 된다.** 해당 사업의 **사업 플랜 매출은 389억원으로, 위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 진입 시 인프라 구축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 전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자료 : Research and Market(2017), 리서치모름

**[그림 29] 국내 스마트 시티 관련 법안**

구분	U-City	스마트시티
근거 법률	. U-city 법('08~'17)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17.9 시행 예정)
해결 방식	. 도시문제 해결위해 신규 인프라 확대(예: 교통체증→도로건설)	.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교통체증→신호시스템 조정)
추진 주체	. 중앙정부, 공기업 위주의 Top-down 방식 사업 진행 . 정보는 소수에 집중, 시민·기업은 도시정보 배제	. 중앙정부, 공기업 외 민간이 참여하는 Bottom-up 방식 . 정보 공개·공유, 시민들도 도시운영에 적극 참여
적용 / 운영	. 통신, 방범, 방재 등 기본 인프라를 신도시에 도입 . 도시내에서 기능별로 분절적 운영, 도시데이터 공유 불가, 시민이 도시운영체계에 적용	. 행정, 교통, 에너지, 물관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신도시 외 기존도시에도 적용 . 도시전체가 플랫폼으로 연결, 도시데이터 공유로 단절없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 : 국토교통부, 리서치모름

**대규모 허브공항으로 확장되는 인천공항, 통신 파트너 포스코 ICT의 매출도 확장**

인천공항의 국제 및 국내선 여객 수요 증가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3,4단계) → 공항 수하물 서비스 BHS 수요 증가 → 포스코ICT SOC 내 공항 BHS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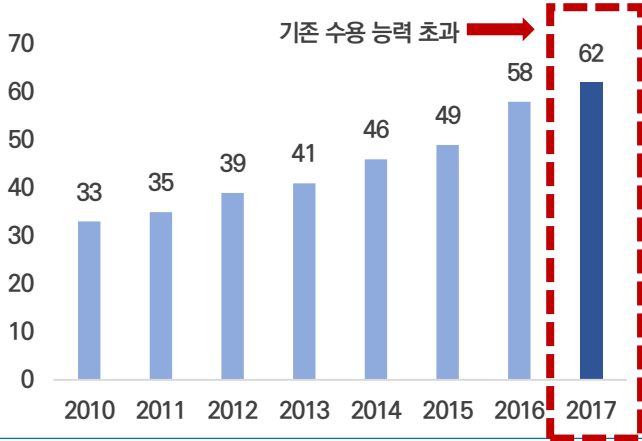
**인천공항 BHS 인프라 구축 및 통신 시스템 운영**

동사의 SOC 영업부는 스마트 빌딩과 더불어 공항 자동화 장치로, 최첨단 수하물처리시스템인 BHS를 통해 공항 및 물류 엔지니어링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인천공항 제 1 여객터미널의 수하물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1년 인천국제공항의 운항통신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 전체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동사의 경쟁력이 제 1공항에서 입증되어 2014년 인천공항 제 2 여객터미널의 공항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어 스마트수하물시스템(BHS)를 도입하였다. 인천 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의 통신 부문 수주 현황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50억원의 수주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제 1 여객터미널의 통신유지비가 약 850억원이 발생했던 종전 추이를 보았을 때, 제 2 여객터미널의 유지비도 제 1여객터미널의 약 60%의 규모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BHS: 에너지 이용 및 공간 효율성 + 수하물 검사 정밀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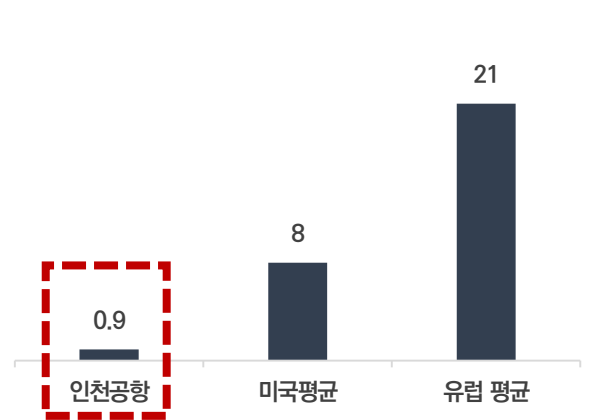
제 2여객터미널의 BHS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만 42km에 달하며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 허브 공항의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4년간의 여객터미널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끝에 포스코 ICT는 수하물 운반 트레이 무게를 감소시켜 에너지비용을 70%이상 절약하였으며 조기도착수하물을 1m정도 간격으로 보관하던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달리 이번 제 2여객터미널 프로젝트에서는 50cm이하로 간격을 줄여 1m당 1개의 수하물만 보관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3~4개로 늘어나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기존 X-ray로 행하던 수하물 검사와는 달리 제 2여객터미널에서는 CT를 사용해 보다 정밀한 수하물 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였다.

[그림 30] 인천공항 여객 추이 (단위 :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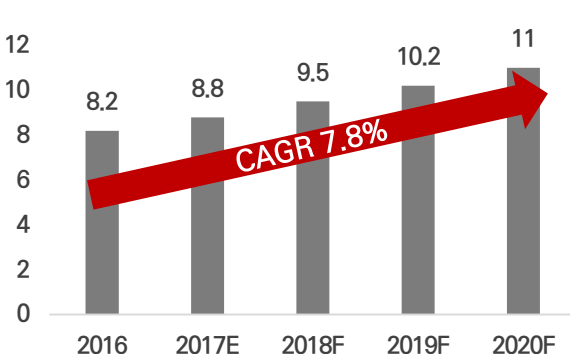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공항공사, 리서치모름

[그림 31] 수하물 미탑재율 비교 (2017) (단위 : 개/1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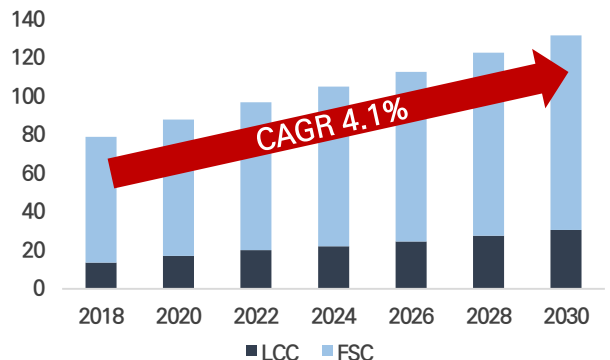
자료 : 국제항공운송협회, 리서치모름

[그림 32] 세계 공항 BHS 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자료 :마켓스앤드마켓스, 리서치모름

[그림 33] 세계 항공 수요 (단위 : 백만명)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리서치모름

**제 2여객터미널의 확장 가능성 : 동사의 BHS 수주 증가 예상**

제 2여객터미널의 BHS 효율성 및 효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인천공항 4단계 프로젝트인 제 2여객 터미널 확장 사업에도 동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인 4단계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 공항의 국제 및 국내선 여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42km의 BHS를 추가적으로 35km 확장하여 총 77km의 BHS가 구축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4조 2천억으로,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허브 공항으로 확장된다.

**국내 중소형 공항 BHS 운영 → 해외 중소형 공항 진출 가능성**

대형 공항에 이어서 동사는 김해 공항 등 **중소형 공항에도 BHS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3분기 제주 공항 국제 및 국내선 BHS에도 추가적으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아 중소형 공항 BHS에서도 매출 증대가 이어질 것이다.

국내 중소형 공항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를 도입하여 로봇기술을 도입한 예지정비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기존 대형 공항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BHS에서 중소형 공항에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해외 공항 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34] 인천공항 4단계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계
활주로	2본	1본	-	2본	5본
BHS	21km	67km	42km	35km	165km
연간 운항 처리능력	24만회	17만회	-	33만회	74만회
연간 여객 수용능력	5400만명	-	1800만명	2800만명	1억명
연간 화물 처리능력 (항공화물)	270만톤(228만톤)	180만톤(152만톤)	130만톤(113만톤)	(507만톤)	(1,000만톤)
사업비 (기간)	5조 6천억원('92~'01)	3조원 ('02~'08)	4조 9천억원 ('09~'17)	4조 2천억원 ('18~'23)	

자료 : 인천공항공사, 리서치모름

[그림 35] 국내 공항별 통계 (2017)

공항명	운항(편수)	여객(백만명)	화물(ton)
인천	360295	62	3806251
김해	107363	16.4	186470.7
제주	167280	29.6	275128.7

자료 : 한국공항공사, 리서치모름

[그림 36] 포스코 ICT 인천공항 항 수주 계약

	BHS 길이	금액	기간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BHS 유지관리수주	67km	848억원	2012.8~2015.8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통신 수주	42km	250억원	2014.11~2017.9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BHS 유지관리		532억원	2018.1~2021.1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 수주E	35km	208억원	2018.2~2023.1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확장 BHS 유지관리E		443억원	2023.2~2026.2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포스코 ICT 영업부별 매출 추정**

**SMART EIC**

EIC는 기존사업부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매출액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문 외의 기타 영업부문의 최근 2개년의 추이를 따라 추정하였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문에서의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포스코향 스마트 팩토리 수주 5개에서 2018년 예정 수주 13개로 증가할 것이다. 그 후로도 포스코 그룹은 20년까지 총 66개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는 동사의 약 4년간 신규 수주로 안정적인 Captive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IR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매출액의 대부분이 동 영업부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하여, 동 영업부에는 20%를 인식하여 17E 매출 2910.3억 원, 18E 매출 3303.5억 원(YoY 13.5%)으로 추정된다.

**SMART IT**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로 인한 Big Data 수요 증가 → Data Center 건설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 기존 IT 부문 고객사를 Smart Factory 사업의 새로운 고객으로 전환가능성 증대”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제외한 ‘Smart IT’ 부문 17E 매출 3189.4억 원, 18E 매출 3396.1억 원(YoY 6%) 으로 예상된다.

또한 IR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관련 매출액의 대부분이 동 영업부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하여, 동 영업부의 매출인식액은 해당 매출액의 80%로 산정하여, 동 영업부 17E 매출 3433.3억 원, 18E 매출 4996.1억 원(YoY 45.5%)으로 추정된다.

**융합에너지**

“정부의 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실시 → 매년 1500기 이상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예정 → 민간 전기차 충전소 1위 사업자인 동사의 선점효과”의 과정을 통해 융합에너지 부문 17E 매출 807억 원, 18E 매출 854억 원(YoY 5.8%), 19E 매출 972.6억 원(YoY 13.8%)로 예상된다.

18년에는 유의적인 매출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9년부터 전기차 사업이 본격화 되어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SOC**

SOC 영업부문에서는 쿠웨이트 및 사우디 아라비아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수주로 해외 스마트 시티 시장 진출에 성공하여 마스터 플랜 및 시공 완료 후 18년 2분기, 19년 2분기부터 스마트 시티 매출 본격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공항 BHS부문에서 인천공항의 국제 및 국내선 여객 수요 증가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 (3,4단계) → 공항 수하물 서비스 BHS 수요 증가 및 정기 보수 등 용역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OC 영업부문 17E 매출 2354.7억 원, 18E 매출 2922억 원(YoY 2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 포스코 ICT 각 영업부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억 원)

매출액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7E	1Q18	2Q18	3Q18	4Q18	18E
Smart EIC	623.9	639.6	587.2	663.4	721.4	585.7	840.4	762.8	2910.3	850.8	835.9	803.0	813.9	3303.5
Smart IT	826.5	783.4	754.2	920.7	870.5	844.0	862.7	856.1	3433.3	1317.1	1329.1	1173.0	1176.9	4996.1
에너지융합	113.0	153.6	128.8	306.8	235.0	205.8	139.3	227.6	807.6	209.9	212.2	214.7	217.1	854.0
SOC	343.2	534.8	398.6	604.6	402.1	441.6	438.4	1072.5	2354.7	672.1	876.6	730.5	642.8	2922.0
소계	1906.7	2111.5	1868.9	2495.5	2229.0	2077.1	2280.8	2918.0	9505.9	3050.0	3253.9	2921.1	2850.8	12075.6
영업이익	1Q16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7E	1Q18	2Q18	3Q18	4Q18	18E
Smart EIC	51.2	66.7	67.1	219.8	90.4	69.2	109.6	100.6	369.9	97.0	92.8	98.0	90.8	378.5
Smart IT	38.2	57.1	68.8	217.4	89.5	79.1	91.1	103.4	363.1	160.9	164.8	140.8	150.6	617.1
에너지융합	-34.5	-59.3	-34.1	-98.2	-23.7	-53.4	-72.1	-35.1	-184.2	-21.2	-37.1	-36.71	-16.8	-111.7
SOC	23.5	51.4	13.3	54.0	11.2	14.5	25.1	30.9	81.6	29.3	36.4	25.4	26.4	117.5
소계	78.4	116.0	115.0	393.1	167.4	109.4	153.7	199.9	630.3	265.9	257.0	227.4	251.1	1001.3

자료 : 포스코 ICT, 리서치모름

Peer Per Valuation

Peer Group 선정

포스코 ICT의 실적과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성장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의미한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LS산전, 에스엠코어를 Peer Group으로 선정했다. 동사는 삼성에스디에스와 LS산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예상 매출액은 작지만 1)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장비와 시스템 모두를 제공한다는 장점과 2)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기업 중심의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 에스엠코어는 동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매출의 97%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판단해 Peer로 선정하였다.

(단위:억원, %)

	시가총액	2018E 매출액	2018E 영업이익률	2018E PER
포스코 ICT	13151	12076	8.5%	19.74
삼성에스디에스	182612	104348	8.05%	23.04
LS산전	16710	26012	8.05%	13.5
에스엠코어	3150	2347	11.25%	20.82

Peer Group Per

Peer들의 2018E 매출액, 영업이익률, PER는 최근 6개월간의 리포트의 평균을 통해 산출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매출규모가 크고,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동사보다 더 높은 PER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있어서 장비의 비중이 낮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 모두에 강점이 있는 동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둘을 고려해 삼성에스디에스의 예상 PER에 10%의 디스카운트를 주어 반영했다. LS산전은 동사보다 약간 높은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더 낮은 단계인 중소기업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하고 있어 동사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LS산전의 PER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에스엠코어는 SK 계열사로 SK 그룹향 Captive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라는 점이 유사하다. 하지만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로 확장되고 있는 동사와 달리 단일분야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20%의 프리미엄을 부과해 반영했다.

당기 순이익 (억원)	817
발행주식 수	152034729
EPS (주당 순이익)	538
2018 Target Per	19.74
적정 주가	10620
현재 주가	8420
상승 여력	26%

Peer Per Valuation

동사의 2018E 당기 순이익은 817억원이며, 발행주식수는 약 1억 5200만주이다. 이를 통해 산출한 예상 EPS는 538원이다. Peer valuation을 통해 산출한 2018E Per 19.74를 적용해 10600원의 목표주가를 산출했다. 2018년 동사는 현재주가 8240원 대비 26%의 Upside Potential을 갖고 있다.



## Q&amp;A

## 1. 추가적인 스마트 팩토리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 현재 포스코 ICT IR 문의결과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수주는 포스코향과 동화기업의 수주로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대규모 수주 성과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Captive 수주가 끝난 이후에도 포스코의 내/외부 계열사 및 전후방사로 이어질 공간이 크며, 실제 시범공장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동화기업의 전·후방사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정부의 2014년 6월 '제조업혁신 3.0'의 3대 전략의 과제로 지속적 홍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은 자동화 수준의 개선인 경우가 많아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으며, 그 결과 국내에는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우수 사례의 경우, 구축비용의 업체 부담률은 평균 54.4% 정도이고, 자사 투자를 늘리면 서까지 구축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한 업체는 20개 중 2곳에 불과했다. 4차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스마트 팩토리의 성과 가시화로 인해 동사의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팩토리의 수요 잠재력은 충분하고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 2.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 대규모 공장 대상인가 중소기업 공장 대상인가?

- 현재 국내 발표된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공장위주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사는 고도화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기술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수혜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도화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기술이 4차 산업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중심의 동사도 앞으로 더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앞으로는 고도화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용어 정리

- SMARTX: 개별 사업조직에 분산된 신사업을 통합해 기술·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Smart Management, Smart Construction, Market Network, 블록체인 등을 새롭게 추진해 공장과 빌딩, 발전소 이외에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 엑사바이트: 1TB(테라바이트) = 1024 GB, 1PB(페타바이트) = 1024 TB, 1EB(엑사바이트) = 1024 PB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중의 인터넷 망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 달리 기업 등 내부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클라우드이다.
- 마이크로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독립 전력망의 구축 및 운영하는 전 과정
-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 전력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출력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 BHS: 수하물처리시스템(BHS: Baggage Handling System)은 공항 여객의 수하물을 안전하게 목적지 별로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하여 수하물의 검색, 이송, 분류 및 필요 시 저장할 수 있도록 수하물을 처리하는 공항 운영의 필수 설비이다. (출처: KIS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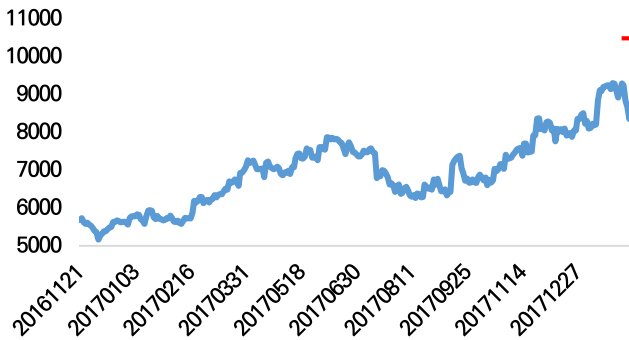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조사분석 담당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작성자 : 예준혁, 강윤아, 강혜인, 이인호)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나 제3자에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사는 발간일 현재 동 종목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분석 담당자는 발간일 현재 동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및 산업분석 주가전망 구분

- Positive 3개월 내 시장 대비 3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 Neutral 3개월 내 시장 대비 -10%~10%의 주가등락이 예상될 경우
- Negative 3개월 내 시장 대비 10% 이상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제이씨현시스템 주가추이 및 적정주가 (단위: 원)



Rating Change

날짜	적정주가	주가전망
2018.02.11.	10,600원	Positive



독립 리서치알음은 QATS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빌딩 8층

TEL : 02-6405-9871

FAX : 02-6405-9870